

공연 Review

광주극장 개관 83주년 기념 전야공연 'EYM 트리오'



EYM 트리오의 공연 모습.

광주프랑스문화원 일리앙스프랑스제국

지적인 연주가 빛어낸 '유러피안 재즈'

월드뮤직과 접목 통해 세련미 더해내

재즈의 발원지 미국과 사뭇 다른 유럽의 재즈는 이 곳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과 낭만이 녹아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재즈가 가진 하위장르의 뚜렷한 구분 속에서 유러피안 재즈는 그 특유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러피안 재즈에 대한 팬들의 인식은 '정교하고 아름답다'라는 평과 '비교적 힘이 부족하다'라는 엇갈린 호불호를 드러내기도 한다.

결성한 EYM 트리오의 첫 스무살을 넘긴 2010년 데뷔해 이듬해 프랑스의 국제적 재즈 페스티벌인 '운 도아 데 재즈 페스티벌' 등지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첫 앨범 'Genesis'와 2016년 2집 'Khamsein'을 발매하며 입지를 넓힌 이들은 올해 세번째 정규 앨범 'Sadhana'를 발매하며 꾸준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14일 가평에서 열린 국내 최대의 재즈페스티벌 '제18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무대에 초청되기도 한 EYM 트리오의 광주극장에서 그 저력을 다 시한번 발휘하게 됐다.

이날 연주에 참여한 베이스리스트 안페이페는 공연을 마무리짓는 후 "헝기 왕성한 관객들의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차후 한국에 다시 방문해 다양한 공연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기자 dak1482@gmail.com

'옛 도쿄, 에도의 스타들'展 23~28일 아시아문화원

우키요에로 만나는 일본의 옛 모습

일본 에도 전통화화 기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시아문화원은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 '옛 도쿄, 에도의 스타들: 우키요에 인물화로 보는 에도의 최신 유행'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동북아시아문화학회·부경대 인문학국립사(HK+)사업단과 공동 개최한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2004년부터 일본 문화예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우키요에 전시를 순회했으며, 이번 전시에는 40여점의 작품을 엄선해 우키요에가 지닌 미술·조형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디어로서의 특징, 회화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키요에는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풍속화로 주로 목판으로 제작해 찍어내는 일본의 독특한 전통화이다. 여성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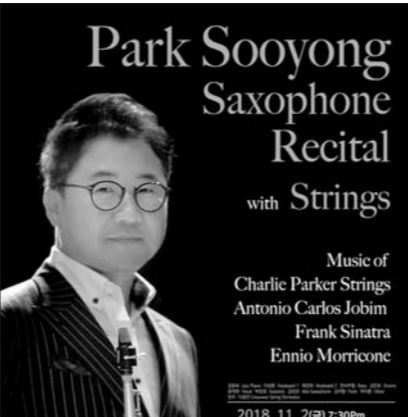


제로 한 미인화와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배우화(아쿠사)가 대표적이며, 당대 일본

인들의 생활상과 유행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잡지나 화보집과 유사한 기능을 했다. 이번 전시를 공동개최하는 아시아문화원과 부경대학교 HK+사업단은 연구, 조사, 출판, 전시,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양 연구소의 연구진과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김옥경기자 ugkyid7@harmail.net

박수용 리사이틀 내달 2일 ACC 극장 2

Advertisement for Park Sooyong Saxophone Recit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axophone and the text '색소폰 선율로 물들이는 가을밤' (Autumn Night dyed with saxophone melody). The text describes the concert program, including pieces by Charlie Parker, Antonio Carlos Jobim, and Frank Sinatra, and mentions the date as October 2nd at ACC Theater 2.



이영주기자 dak1482@gmail.com

라떼파파, 아이는 누가 키우는가

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비현실적이다. 평화로운 호숫가, 아름다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공원, 자동차들이 아우성대는 도심 거리를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며 걷고있다. 집 근처 골목에서, 공원에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햇볕을 호흡하는 남성들, 평온함과 이능력 가득하다. 유모차 끄는 아빠들의 비현실성은 스톱컷의 '일상'이라는데 있다. 스톱컷에서 유모차 끄는 남성은 특별한 것도, 이채로운 것도 없는 그들의 생활이다. 유모차를 끌며 커피머신을 즐기는 남성을 일컫는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이니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인 셈이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그나마도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방문객에게 일상이 비현실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는 점이다. 출산의 주제인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지점에서 해법을 모색했다. 출산과 육아 부분에 좀 더 집중했다. 출산휴가 '블' 비롯해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남성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적 권고사항이 아닌 출산과 육아를 권리와 의무(고충주)로 체계화했다. 출산이나 육아가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과 교육, 주거 등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되자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갔다. 이 과정에 라떼파파라는 신세대가 등장했고 이제 스웨덴에서 라떼파파는 더 이상 새로움이 아니라 일상으로,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물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인구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2021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다.

왜 스웨덴 남성들은 유독 유모차를 많이 끄나, 이곳 남성들은 인근 유럽이나 다른 나라 남성들보다 유달리 여성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는가. 스웨덴 남성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유모차 아빠는 스웨덴만의 풍경이 됐으니, 라떼파파는 스웨덴 남성들의 문화이자 특성이자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떼파파는 전통적인 남성상이라기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스웨덴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현대의 풍경이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이종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결과물이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지만 스웨덴도 해외 이민과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스웨덴은 교육과 의료, 육아, 주거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 체제다. 국가가 건강이나 교육, 주거 등을 지원하는데 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스웨덴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에 쏟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들은 '출산율'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았

그것은 바로 정부정책의 방향, 철학에 있다. 이들은 소위 '출산율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여성들의 삶'에 주목했다. 출산이나 육아 고통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만든 것이다. 그러자 역설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역설적 반증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부모도 아이도 살만한 사회라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럴때야 태어난 아이들에게 덜 미안할 일이다. 육아(교육)를 비롯한 삶의 근간을 살별한 시장에 던져두고 설상가상 출산율 운운하는 우리 현실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다.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일부터, 근본에서. 이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금호갤러리, 전남대 서양화전공 졸업전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작품전 '빛다르다'전을 개최한다. 빛다르다는 '색다르다'의 옛 표현으로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보통의 것과 다른 특색이 있다'는 뜻이다. 전남대 서양화 전공에 속하지만 본인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붙인 타이틀이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는 물론 표현 등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작품은 강부연, 김가영, 김기은, 김민재, 김서현, 김유나, 송미경, 이인혜, 이정은, 이주원, 이지연, 이지은, 임수빈, 조원주, 최효영 등 15명의 예비작가 작품들이 전시된다. 평면작품과 영상작품, 단체작품, 인터뷰 영상 등 약 50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오픈식은 25일 오후 6시 금호갤러리에서



강부연 작
갤러리 관람시간은 25~3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김옥경기자 ugkyid7@harmail.net

사진을 통해 본 인문학적 사유

광주시립미술관, 26일 사진미학강좌

사진 속에 반영된 인문학적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사진미학강좌 '사진과 인생'의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인 전남대 교수가 '사진에 관한 인문학적 사유(1)-문화적 기억매체로서의 사진과 그 해석'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적 기억 매체로서의 사진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사진의 수용 측면에서 사진 해석의 중

요성을 부각시킨 독일 작가 브레히트의 '전정교본'을 소개한다. 특히 독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노순택의 '망각기계'가 사진 활용의 측면에서 다뤄면서 사진이 어떻게 현실을 표현하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지를 알려준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은 현재 '노순택 전 '빛따라'가' 열리고 있어서 수강생들은 더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한 내용의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옥경기자 ugkyid7@harmail.net